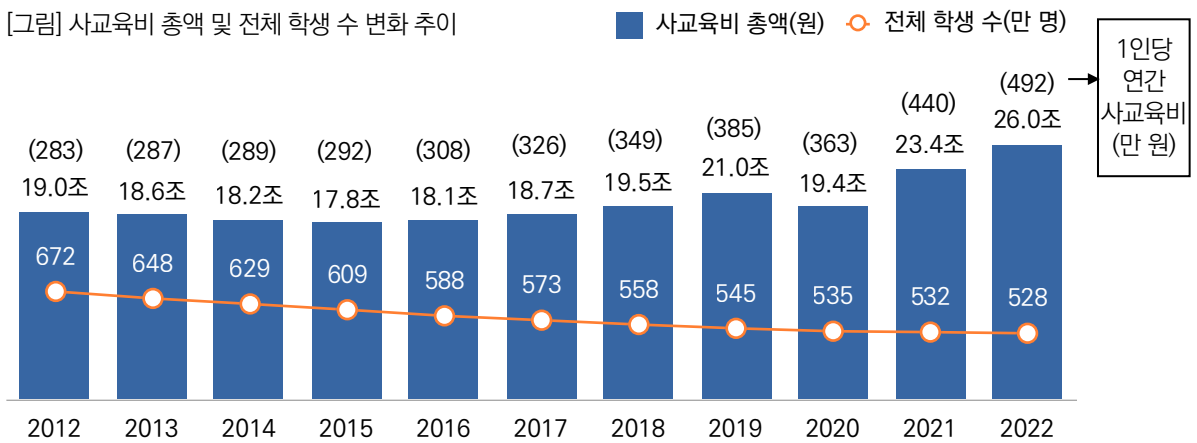




초중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, 10년 새 74% 증가!

- ▶ 교육부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'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'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** 총액은 26조 원으로 2007년 조사 시작 이래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, 10년 전(2012년) 대비 36%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. 반면 우리나라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2012년 672만 명에서 2022년 528만 명으로 21% 가량 줄며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였다.
- ▶ 학생 1인당 연간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2012년 283만 원에서 2022년 492만 원으로 10년간 무려 74%가 증가하였다. 학부모들의 부담이 매우 커졌음을 보여주고 있다.

[그림] 사교육비 총액 및 전체 학생 수 변화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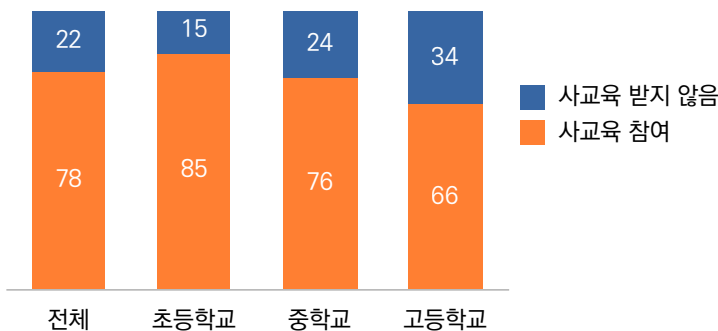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통계청/교육부,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보도자료, 2023.03.07.(2022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각 연도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보도자료 참조함)
 **사교육비의 범위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(학원, 개인과외, 그룹과외, 방문학습지,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)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방과후학교, EBS 교재비, 어학연수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

◎ 사교육 받지 않는 초중고 학생, 10명 중 2명에 불과

- ▶ 전체 초중고 학생의 '사교육 참여율'은 78%로 10명 중 8명은 학교 외 학원 교습 등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. 반면 사교육을 받지 않는 비율은 22%에 불과했다.
- ▶ 사교육 참여율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85%로 가장 높았고, 중학교 76%, 고등학교 66% 순이었다.

[그림] 사교육 참여율 (2022년, %)



*자료 출처 : 통계청/교육부,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보도자료, 2023.03.07

◎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, 서울 71만 원!

- ▶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어느 정도일까?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작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2만 원으로 집계됐다. 학교급과 지역별 차이가 있었는데 고등학교가 70만 원으로 초등학교에 비해 59% 높았고, 지역별로는 서울이 71만 원으로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▶ 서울 지역만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59만 원, 중학교 75만 원이었고, 고등학교는 94만 원으로 월평균 100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전체적으로 서울이 전국평균보다 사교육비를 37%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(2022, 참여학생 기준)



*자료 출처 : 통계청/교육부,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보도자료, 2023.03.07.

**중소도시는 서울 및 6대 광역시(인천, 대전, 광주, 대구, 울산, 부산)를 제외한 일반시(市)의 동(洞)지역.